



금호그룹 모태 금호고속 판다

재무구조 개선위해 분리매각후 재매입 방침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그룹의 모태인 '금호고속' 매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채권단과 금호그룹은 금호산업의 고속사업부(이하 금호고속)를 물적 분할한 후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관련기사 3면> 금호그룹 관계자는 "자구계획 이행 차원에서 금호고속을 분할해 매각하는 방안을 채권단과 검토 중"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4월 금호그룹이 채권단과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MOU)에 오는

2013년까지 금호고속을 분리 매각한다는 구조조정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금호그룹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호고속 매각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매각금액은 최고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 흐름이 양호한 금호고속을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호고속은 금호건설(건설사업부)와 함께 금호산업에 소속돼 있다. 금호고속은 금호산업 전체 매출의 15%에 불과하지만 매년 400억~500억원의 이익을 내는 알짜 사업부다. 지난

해에는 매출액 3267억원, 영업이익 52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금호고속은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이 그룹을 일으킨 모태이자,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라는 상징성도 있다. 이 때문에 금호고속은 그룹 경영이 정상화되면 되사울 수 있도록 콜업선 조항을 달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호고속은 지난 2003년에도 금호산업의 타이어사업부(금호타이어)를 FI에 매각했다가 콜업선을 행사해 되사온 경험이 있다. 금호타이어의 전례를 볼 때 금호고속도 분리 매각해 재매입하는 뒤 그룹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매입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2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호남권 터치산업 등 3개 선정

영남권은 7개...지역간 불균형 고착 우려

정부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호남권을 3개를 선정한 반면 대경권 및 동남권 등 영남권은 모두 7개를 지정해 호남권 1곳, 영남권 2곳을 핵심으로 하는 '5+2 광역경제권' 설립에 따른 폐해가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올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 지원대상으로 바이오, IT융합 등 16개 신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은 시·도 행정 단위의 지역사업 대신 지자체 간 공동연구개발(R&D) 등의 사업을 통해 서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광역 시·도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예산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과제를 중

심으로 개설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들 과제에 올해 국비 548억원, 지자체 468억원 및 민간 투자금 598억원 등 모두 1614억원을 지원하는 등 향후 3년 동안 4730억원(국비 1644억원, 지자체 1439억원, 민간 164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선정된 연계협력사업은 바이오 5개, IT융합 2개, 2차 전지 2개, 세라믹·산업용 섬유 소재 3개, 신재생에너지 1개, 금형 1개, 뿌리산업 1개, 해양플랜트 1개 등 16개다. 이 중 호남권은 광역사업으로 '터치 용·복합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광주·전북·전남)', 초광역사업으로 '탄소섬유 기반 해양 스포츠·레저장비 개발(전북·전남·부산)', '3G-Bio 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사업(전남·광주·인천)' 등이 선정됐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李대통령-孫대표 27일 회담

등록금·저축銀 사태·한미 FTA 등 논의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이 27일 열린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대학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민생 현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을 논의한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동철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1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담 개최 일자와 회담 의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회담 의제는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 ▲저축은행 비리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안 처리 ▲일자리 창출 대책 ▲추경예산 편성 여부 ▲가계부채 해결 방안 등이다. 이로써 지난 2008년 9월 이 대통령과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의 만남 이후, 거의 3년 만에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관계에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회담은 배석자를 대동한 조찬 회동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단독 회담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앞으로 실무 접촉을 통해 세부 의제와 논의 방향을 세밀하게 조율해 성공적인 회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더위 싸~악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돈 21일 낮 구례군 산동면 수락폭포를 찾은 젊은이들이 시원한 물줄기에 더위를 식히고 있다. /구례=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일시 : 2011년 7월 4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062)605-1112, 1063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5분내로 즐겨라!

상무의 라이프 프리미엄-

- ① 상무역 도보 3분
- ② 운천호수공원 도보 3분
- ③ 백석산 도보 1분
- ④ 롯데마트 치량 3분
- ⑤ 상무조각공원 치량 5분

상무역과 운천호수공원이 3분 거리, 백석산의 쾌적한 자연과 상무의 생활기차까지 5분내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라이프 - 상무 한신휴플러스에서 누리십시오

모델하우스 오픈 **BIG** 이벤트!

모델하우스 • 라면 5개 1Set(행사기간 중 매일 선착순 500명)
내방 고객께 • 각티슈1매
증정! • 행주1매+각티슈1매(선착순 1천명)※선물 용량에 대상에 한함.

■ 경 품 : LCD-TV 46인치(3명) / 드럼세탁기(6명) / MTB자전거(30명) / 선릉기(45명) / CGV영화관람권(60명)
■ 응모기간 : 2011년 6월 22일(수)~26일(일)
■ 추첨일시 : 2011년 6월 24일(금)~26일(일) 매일 오후 5시
■ 추첨장소 : 마름동 한신휴플러스 모델하우스
※본 사업장은 당시 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첨은 총 3회에 걸쳐 진행하며 중복 당첨은 불가합니다. ※제대공과금은 당량률로 부담됩니다.

84㎡(구36형) 192세대 / 108㎡(구43형) 20세대 / 123㎡(구48형) 26세대 | 총 238세대

모델하우스 오픈은 길
버스편 : 송정15, 참진20, 지현5, 상무92, 대촌9, 송암73, 대촌70
(연고 버스승강장 하차)
차량별 : 김대중컨벤션센터역 하차 1번 출구에서 200m

분양문의
062) 371-4114

사행사 한국토지신탁 위촉사 (HS) (주) 황산개발 사공사 (주) 한신공영(주)

본 광고에 사용된 조경도, 투시도,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